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우리 학회

지난해 1월 1일 학회장에 취임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우리 한국고분자학회
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회고해 보면 우리들이 참여하고 주관한 본
학회의 정기적인 연례행사인 춘계 및 추계총회와 학술논문발표대회가 각각 동국대학
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일반회원 약 1천여 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특기할 일은 년 간 우리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숫자가 약 1500여편으

로 늘어났고, 춘계총회에서는 김정엽 박사(상암고분자상수상, KIST), 김성완 박사
(Dale Wurster Award 수상, 미국 유타대), Nakahama 박사(일본고분자학회 회장, 동경공대), Kajiyama
박사(일본고분자학회 부회장, 규슈대) 등의 초청특별강연이 있었고, 추계총회에서는 한만정 박사(한국과학
수상, 아주대), 윤도영 박사(미국 IBM 근무귀국, 서울대 교수) 등의 수준 높은 초청특별강연이 있어 좋은 평
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계획하였던 「고분자 아카데미」,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 및 「고분자 기기
분석 세미나」 등의 행사가 학회 여러 운영이사님들의 수고로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적 행사로는
한·중·일·러시아 4개국이 참여해 온 「제2회 동아시아 첨단 고분자 심포지움」이 준비위원장 김은영 박사
(KIST)와 학술조직위원장 최철림 박사(부회장, KIST)의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8월 중 속초 설악산에서
성공리에 마쳤고 차기 회의는 러시아에서 개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중에 있었던 「한·중 국제공동 학술
대회」는 수석부회장 김광웅 박사 외 다수가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했고, 10월 중 일본고분자학회 주최 국제고
분자회의「IPC '99」에는 차국현 박사(서울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연구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중국 광주(廣州)에서 개최되었던 「Pacific Polymer Conference」에는 25개국이 참여하였는데 한
국에서는 김성철 박사(KAIST, 부회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행된 학회지는 「폴리머」 6권, 영문학술지 「Korea Polymer Journal」 6권과 「고분자과학
과 기술」지 6권 등 총 18권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회회원 확보와 지부 활성화에 힘썼으며, 고분자과
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을 위해 여러 임원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아쉬움이 있
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평의원과 차기회장을 선출한 일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일년, 어려운 IMF시대에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회원과 특히
김광웅 수석부회장, 김낙중 전무이사과 이상원 총무이사를 비롯한 여러 운영이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
회운영과 발전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전임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새로
이 학회 운영을 맡은 김광웅 회장, 김성철 수석부회장, 이상원 전무이사, 이두성 총무이사과 학회 운영이사들
께 건투를 빌며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년 1월 1일
전임회장 **성 용 길**